

광주시 자치구 경계 조정 논의 2년 만에 재개

준비 기획단 회의...개편 대안 마련·추진일정 논의 연말까지 대안 결정 후 실태조사·구의회 의견수렴

광주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논의가 2년 만에 재개됐다. 광주시는 27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자치구 간 경계 조정 준비 기획단 제5차 회의를 열고 개편 대안 마련 등 추진 일정을 논의했다. 2018년 11월 경계 조정 용역 최종 보고회 이후 일부 정치권과 이해관계 주민 반발로 중단됐던 논의를 2년 만에 재개한 것이다.

시는 최근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 경계 조정을 요구하고 광주시의회 의장단, 5개 자치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도 공감을 확인했다고 배경을 설명했

다. 준비 기획단은 사·구의회, 사·구·교육청, 정당,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38명으로 애초 구성됐으나 포함되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구 관할 시의원 4명을 추가로 위촉했다. 회의에서는 시 자치행정과장이 추진 상황, 계획을 설명하고 위원들은 2018년 용역에서 도출된 3가지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당시 용역에서는 소·중·대 등 조정 폭에 따른 3가지 안이 도출됐으며, 소폭 조정안은 북구 문화동·봉향동·두암 1~3동·석곡동 등 6개동을 동구로, 중폭 조정안은 이에 더해 광산구 첨단 1·2동까지 북구로 편

입하는 것이다. 대폭 조정안은 북구·가다 선거구 등 12개동 동구 편입, 광산구 첨단 1·2동 북구 편입, 광산구 나 선거구 5개 동 서구 편입, 서구 풍양지구 남구 편입 등이 핵심 내용이며, 현재 자치구와 지역 정치권 등에서 대폭 조정안 보다는 소·중 조정안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다.

광주에선 2011년 10월 1일 동구 산수 1·2동이 북구로, 북구 풍향동 일부 등을 동구로 편입한 게 마지막 경계조정이다. 인구가 부족해 남구와 합쳐 2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한 동구는 구간 경계조정에 대해 적극적인 반면 인구 유입이 활발한 광산구는 반대하는 분위기다. 나머지 구는 관망세다.

준비 기획단은 앞으로 몇 차례 회의를 열고 가급적 연말까지 개편 대안을 결정

할 예정이다. 경계 조정안이 확정되면 자치구에서 자체 실태조사, 구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에 건의하게 된다.

시에서 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 공포로 확정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낙후한 지역을 살리고 타 지역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광주지역 인구수를 재배치하는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비롯한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등을 더 이상 늦추거나 방치해선 안된다"면서 "지금 당장 복잡하고 귀찮다고 방치·외면한다면 미래세대로부터 두고두고 나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나주시 공무원 700여명 전수검사 모두 음성

코로나19 진정세... 나주시 "행정 공백 불가피 시민께 송구"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한 나주시에 대해 방역당국이 공무원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와 나주시 방역당국은 지난 26일 나주시 공무원 1명(전남 182번)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시청 공무원 700여명을 전수 검사했다. 검사 결과, 전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전남 183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다만 방역당국은 코로나 확진 공무원과 밀접촉한 공무원 95명 등 145명에 대해선 검사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명령했다. 자가격리 대상 공무원 명단에는 강인규 나주시장과 확진자가 발생한 일자리경제과 소속 공무원 26명이 포함됐다.

나주시는 이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자가격리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행정 공백이 불가피하다.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 청사 방문을

자제하시고, 급한 응무는 유무선 통신을 통해 처리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공무원 2명이 26일 새벽과 오후 잇따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시청 공무원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검역 경로 조사 결과, 지난 14일 나주시 다시면 모 식당에서 서울 송파 356번 확진자와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팀장급 공무원(전남 182번)의 동선이 겹친 사실이 확인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 182번, 183번 확진자와 밀접촉한 공무원 95명 등 145명은 검사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들에게 대해선 격리 해제 전 2차 검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재 코로나 19 전남 누적 확진자는 184명이다. 지역 감염 사례 139명, 해외 유입 사례 45명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

민주당, '5·18 특별법' 당론 채택... "국민의힘도 협력해야"

'계엄군 성폭력 사건' 등 추가 진상규명 항목 7개서 12개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의총에서는 특별한 토론 없이 이들 법안은 당론 채택됐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에는 '계엄군 등에 의해 이뤄진 성폭력 사건' 등 조사의위의 진상규명 조항항목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형석(북구을) 의원이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역사 왜곡에 관한 처벌 항목을 신설했다.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5·18 당시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더불어민주당 설훈, 이형석 의원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5·18 관련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당시 현장 지휘관이나 군인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

위원장은 지난 8월 광주 5·18 민주묘지 앞 에 무릎을 꿇고 5·18 역사를 부정하고 폄하 발언을 일삼아는 당의 과오를 사죄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 힘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5·18 역사왜곡처벌 법과 진상규명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남도, '전남형 지역균형 뉴딜사업' 27개 사업 발굴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등 1조5000억원 규모

전남도청서 전략회의

전남도는 '전남형 지역균형 뉴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 대응 전략회의'를 갖고 그린수소 메가 클러스터 구축,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등 27개 사업(사업비 1조5000억원)을 발굴했다.

최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가진 전략회의는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하면서 신규사업 발굴 및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균형 뉴딜사업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한 개념으로 ▲한국판 뉴딜 중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전남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부처를 단장으로 한 '지역균형 뉴딜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디지털·그린·해상풍력 등 3개 분야에 18개 협업부서와 8개 도 출연기관이 지원기관으로 참여한다.

지난 7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응해 발굴한 90여개의 전남형 뉴딜사업을 지역균형 뉴딜 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보완하고 자체사업과 지역 공공기관 연계사업 등을 발굴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 발굴된 사업은 2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4486억원 규모다. 뉴딜 지역사업이 '그린수소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 20개 사업(3798억원), 지자체 주도사업이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4193억원), 공공기관 선도사업이 '재생에너지 대응 전환주도 공공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생태계 구축 사업' 등 2개 사업(2255억원) 등이다.

향후 '스마트 그린산단', '디지털 문화컨텐츠' 등 디지털 분야의 뉴딜 지역사업을 중점 발굴하는 한편 정부 뉴딜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즉주 단위로 점검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처사는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선 지역 우수자원과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화 사업이 계속 발굴되어야 한다"며 "추진단 활동과 함께 외부 전문가 자문을 상시화하고 정부 동향 파악 및 예산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미래채움 전남센터' 개소...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교육 강화

과기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전남도는 27일 전남지역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이끌어 갈 '미래채움 전남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나주시 옛 산포초 덕례분교 부지

에 들어선 센터 개소식에는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처사,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이민준 전남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과학교육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의 일환인 '미래채움 전남센터'는 초·중등학생의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에 따라 전남의 소프트웨어 교육 격차 해소와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남도, 전남도교육청, 나주시가 공동으로 협력해 ▲언프로그드, SW코딩, 인공지능(AI), 피지컬 교육을 위한 '교육실' ▲드론,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중

심의 '전사·체험공간' ▲야외 교육을 위한 '운동장' 등을 운영한다.

특히 저소득층 및 도서벽지 초·중등학생들의 소프트웨어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험교육이 실시된다.

또 지역 미취업 청년을 전문강사로 양성해 소프트웨어 교육 전문 강사로 활용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용(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기능·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직접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기능·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CCC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합병에 따른 주권 및 채권자의제출공고

주식회사 디씨(“갑”)와 주식회사 동원(“을”)과 주식회사 뉴마스(“병”)는 각 2020년 10월 26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로 “갑”은 “을”과 “병”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와무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을”과 “병”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각 주주,債권자 및 이합행이 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주권 또는 이의의 제출여부 기재하기 바라며 이에 공표함.

2020년 10월 28일

“갑” 주식회사 디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풍덕중로로 120, 302호 (영광동, 유-터레)
대표이사 최동철

“을” 주식회사 동원
경기도 화성시 봉암읍 매송고개로 462
대표이사 최동철

“병” 주식회사 뉴마스
광주광역시 광산구 명동산단3번로 88(옥동)
대표이사 최동철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양 박철석(450303-XXXXXX)
· 최후주소: 목포시 하당로 14, 110동 203호 (상동, 풍동산신안아파트)

· 등록기준지: 전남 신안군 안해읍 매화리 1203

피상속인 양 박철석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시정발원 목포지원 2020-년393호로 신청하여 2020년 10월 2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지기 바람에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10월 28일

· 상속인: 박정은(71122-XXXXXX)
목포시 하당로 14, 110동 203호 (상동, 풍동산신안아파트)

· 신고기간: 2020. 10. 28 ~ 2021. 1. 6

· 채권신고처: 상속인 박정은의 주소

산행안내

11월7일(토)

▲광주금당산악회 11월7일 전북 대둔산·뫼대봉 단풍산행, 봉선동 롯데마트와 07:10, 진월동식자재마트와 07:20, 영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 앞 07:40, 문예회관정문 07:50, 비엔날레주차장입구 08: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11월8일(일)

▲광주자연보호연합회 11월8일(일) 작은가야산(경남 합천), 영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힐플러스 07:20 * 다음카페 광주자연보호연합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주일보 先州日報

광고문의 227-9600 신문구독 220-0551 예약구독 220-0550